TAX & CUSTOMS
[조세] 2025년 세제개편안 국무회의 최종 확정

2025년 세제개편안 국무회의 최종 확정, 기업 시사점은?

정부가 2025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개편은 기업의 투자와 고용, 그리고 미래 산업 경쟁력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반도체·이차전지·수소 등 기존 국가전략기술에 더해 AI 기술이 전략분야로 포함되며, 연구개발과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확대됩니다. 또한 해외 외 인재의 국내 복귀 감면제도 연장, 고용 유지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 유턴 기업 및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가 주요 변화입니다. 여기에 고배당 기업의 분리과세, 웹툰·영상 등 콘텐츠 산업 세제지원까지 더해져 첨단산업부터 문화콘텐츠까지 전방위적인 성장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관세청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도입, 수출입업체 준비사항

2025년 9월 1일부터 관세청의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가 시행됩니다. 이번 개편은 반복적인 과세자료 제출 부담을 줄이며 신고의 정확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AEO 또는 ACVA 참여 기업과 연매출 5억 원 미만 소규모 수입업체는 자료 제출 면제대상이며, 동일 조건 거래는 연 1회만 자료 제출해도 됩니다. 과세자료 제출 항목도 권리사용료, 수수료 등 8개 분야로 명확하게 한정됩니다. 과도한 자료 준비 전 제도의 혜택부터 놓치지 않도록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WTO 체제 종식 선언, 글로벌 관세 전쟁 속 한국 기업 대비책

미국의 WTO 체제 종식 선언과 고율 관세 적용은 글로벌 관세 전쟁의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이미 중국은 145% 부과된 관세에 맞서 125% 반격 관세로 대응하며, 인도·브라질과 함께 BRICS 반( )미 연대를 강화 중입니다. 공급망 재편의 가속화와 국가별 무역 규범의 불확실성에 한국 기업은 무엇을 대비해야 할까요?

CASE STUDY
판결분석

헌법재판소, 가업 승계 목적 증여세 감경의 요건 합헌 판결

자회사 명의 세금계산서를 모회사 책임으로 본 대법원의 첫 판결

관세조사 기간 이후 자료 요청은 절차 위반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

PROPOSED BILL
최신 제·개정법

체납자 실태확인 근거 규정 마련 등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창업기업 세부담 완화 등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품목분류 사전심사 시 가산세 감면 등 관세법 일부 개정

제3국 이용 우회덤핑 차단 위한 관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

GOVERNMENT TRENDS
관련 부처 동향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개정

글로벌최저한세 포털 오픈, 다국적기업 신고 준비 지원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자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 대응 방향

INSIGHTS
언론 속 대륜

서울신문

법무법인 대륜, 상법 개정·노란 봉투법 대응 전략 세미나 개최

오는 9월 3일, 법무법인 대륜이 '2025 상법 개정·노란봉투법 대응 전략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세미나에서는 법령 변화에 따라 달라질 노사관계, 기업 지배구조 환경에 선제 대비할 수 있는 전략을 점검하고 실질적 방향 수립에 인사이트를 드릴 수 있는 발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국경제

보건의료 데이터 금광 쌓아두고 못 쓰는 ...패러다임 전환 필요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체계 및 IT 인프라를 보유했으나, 법과 제도가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데이터 패러독스에 직면한 한국. 의료제약그룹 이서형 변호사가 보건의료 데이터 패러다임의 전환책을 제시합니다.

조선비즈

"지주사 지위 필요없다" 일진홀딩스 이어 노루홀딩스도 반납한 까닭

중견기업 지주사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지위를 반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업계는 지주사 유지에 대한 실익보다 규제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합니다. 지주사 지위 반납 이유에 대해 대륜의 정우형, 오상욱 변호사가 코멘트를 남겼습니다.

머니S

미국 진출한 기업들 규제·소송 '발목'... K로 뚫 해외 진출 '속도'

트럼프 정부 상호관세 강화 이후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와 미국 시장 진출이 증가하고 있지만, 미국의 복잡한 법적 규제로 난항을 겪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에 로펌은 미국 내 네트워크 구축과 법률 자문 서비스 강화 움직임을 보입니다. 대륜 역시 미국 로펌과의 협력으로 특허 출원 및 IP 라이선싱 실무 지원에 나섰습니다.

CONTACT

곽내원 대표송골변호사 T. 070-5117-2950

신종수 최고송골변호사 T. 070-7510-1046

손계준 송골변호사 T. 070-5117-3709

명재호 관세전문위원(관세사 자격취득) T. 070-7510-2016

김대륜 관세전문위원(관세사 자격취득) T. 070-5221-2505

강성권 변호사 T. 070-7510-1118

법무법인(유한) 대륜

대표번호 1800-7905

법률상담 바로가기

법무법인(유한)대륜의 뉴스레터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한)대륜의 공식적인 견해나 법적인 효력을 지니고 있지 않습니다.